

화를 복으로 바꾼 레위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으로다 그 노염이 흑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홀으리로다 [개역, 창세기 49:5~7]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돌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맞사에서 시험하시고 브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으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개역, 신명기 33:8~11]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개역, 민수기 25:6-7]

어떤 분이 사고를 당했는데 찾아가서 “야, 이거 전화위복이다.”라고 한다면 경우에 잘 맞지 않는 말입니다. ‘轉禍爲福’이 좋은 말이긴 하지만 사용할 때는 ‘이것은 전화위복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복이 될지 누가 아느냐?’는 정도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이 확실히 복이 된다.’든가 ‘확실히 복이다.’라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혹시 이게 복이 될지 누가 아느냐?’라는 이 표현은 좀 희미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사람이 어찌할 수 없으니 단순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나쁘게 말한다면 일종의 요행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위복이라는 말이나 복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부적절하게 보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복이 될지도 모르지 않느냐?’ 아니면 비슷한 표현으로 ‘그만하기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알맞은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로마서 8:28)’ 좋은 말씀이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참을 걸 참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아니, 확실히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혹시 복이 될지 누가 아느냐? 희미합니다. 요행수 비슷해요. 그만하기 다행이다? 위로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긴 하겠죠. 더 나쁜 상황을 생각한다면 ‘그만하기가 다행이다.’는 말이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 별로 힘이 없어 보입니다.

1. 레위의 장래에 대한 야곱의 예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레위 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열 두 아들의 장래사를 예언한 것입니다. 단순히 아버지로서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들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므

온과 레위에게 하는 이야기는 별로 복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5절을 보세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라는데 시므온과 레위만 형제입니까? 다른 사람도 다 형제인데 왜 이 둘만 형제라고 할까요? ‘둘이 똑같은 놈이요’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이 말은 이들이 과거에 저지른 비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야곱의 가족이 세겟성 근처에 갔을 때 세겟성 추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몸을 짓을 하였습니다(창 34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딸을 범하고도 우리 아들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으니 통혼을 하고 함께 잘 지내자는 겁니다. 야곱은 “우리가 너희와 통혼할 수 없다. 만약에 너희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된다면 그 때는 가능할 것이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겟성의 모든 남자들이 동시에 할례를 받고 드러누워 있을 때에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 칼을 들고 가서 세겟성 사람들을 전부 죽여버렸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만약 주변에 있는 다른 성 사람들이 합세해서 들고 일어나면 살아남기 어려운 일이었기에 야곱은 너무 놀라서 도망을 칩니다.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사방 모든 고을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그 곳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랜 후의 일이지만 열 형제들이 요셉에게 갔다가 인질로 잡힌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짐작컨데 동생을 팔아 넘기자고 앞장 서서 주장했던 사람이 시므온이었기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많은 형님들 중에 하필이면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 놓고 나머지 형제들을 돌려보낸 것이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과격하고 잔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면서 야곱이 이들의 장래사를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7절 끝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홀으리로 다’라고 말합니다. 그로부터 400여년이 흐르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다시 이들의 장래사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신명기 33장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말하는 레위 지파의 장래와 야곱이 말한 레위 지파의 장래가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 복받는 레위

신명기 33장 8절을 봅시다. ‘주의 둠뎁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 한마디가 모세가 말한 레위 지파의 훗날에 대한 요약입니다. 간략하게 요약해 놓고 그 다음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제사장의 복장에는 가슴에 관결 흉패라는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보석으로 치장된 화려한 흉패 속에 넣어두는 것이 우림과 둠뎁이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고 대제사장만 착용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주의 둠뎁과 우림이 그에게 있다는 것은 레위가 대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의 일을 맡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가 장차 레위 지파에게 있을 일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계속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주께서 그를 맛사에서 시험하시고 브리바 물에서 그와 다투셨도다’라고 하는데 이 맛사와 브리바라는 곳은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고 돌로 치려했던 곳입니다. 그때 반석에서 물을 얻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항하고 모세와 레위에게 대항하고 싸웠던 곳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고 말하지 않고 누가 그랬다고 합니까? 주께서 그를 시험하시고 다투셨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를 향하여 다투고 시험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리 하셨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다투었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지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위를 시험하고 그들을 훈련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레위 지파를 지도자로, 제사장으로, 백성의 중보자로 훈련시켰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갈등이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귀한 일들을 맡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저주와 같은 정도로 벌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이렇게 사용하신 이유가 9절입니다. **‘그는 부모에게 대하여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를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말씀을 지킴을 인함이라’** 말을 바꾸면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알지 못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기 위해서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버렸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족들을 돌보지 말고 팽개치라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레위 지파는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있었는지는 나중에 다른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귀한 일을 맡기셨는데 10절에는 앞으로 레위 지파가 하게 될 일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레위 지파라면 10절과 11절에서 어느 것이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로다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만약 레위 지파라면 어느 것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혹시 재산 풍족 아닙니까? 이번에 복권 많이 사고 싶었죠? 어느 집사님이 이번 주에 전도사님이 미워 죽겠더라고요. 내가 무슨 잘못을 많이 저질렀나 했더니 복권이 사고 싶어서 못 건디겠는데 전도사님 설교를 생각하고 못 샀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갈 때에는 따라가려고 흉내도 내지 맙시다. 부모님들이 똑바로 서 있으면 부모도 건전한 삶을 영위하겠지만 그 영향이 자녀들에게도 미칩니다. 일확천금? 결코 복이 아닙니다. 바라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로또 복권 이야기가 추적 60분에도 나왔단니까 열풍이 대단하긴 대단한 모양인데 초연하십시오.

재산 풍족도 레위 지파가 받는 복에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더 나은 것 있어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이걸 제 뭉تين데 고집사님이 욕심을 갖고 계시는 모양인데 꿈은 키우셔야 합니다. 재산 풍족도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공부하자고 할 때에 열심히 오시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내가 전도사 노릇을 그나마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걸 제 걸로 남겨놓고 다른 것을 집으세요. 재산 풍족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재산이 많아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풍족하게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의미로 재산 풍족을 복이라고 생각하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가 재산이 풍족해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레위는 어떻게 소득을 얻지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레위의 몫입니다. 소득이 그것 뿐인 레위가 풍족해졌다는 것은 모든 지파가 풍족해졌다는 뜻입니다. 레위의 재산 풍족은 레위 혼자 풍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풍족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가난한데 목사님은 사례를 많이 받아서 부유한 것과 교회는 아주 부유한데 목사님은 그냥 형편없이 살고 있다면 어느 것이 잘 하는 겁니까? 고민해 보십시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목사님이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된 것이라면 그것은 온 교회의 복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목사가 풍족하다는 것이 곧 교회의 성도들이 풍족하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레위가 그런 복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 끝에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이것은 어때요? 내가 레위 지파인데 내 말 안 듣고 나한테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허리를 꺾는다면 이거 어때요? 간혹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목사 말을 안 듣고 대적하면 패가 망신할 것이요 목사가 싫다고 다른 교회로 가게 되면 얼마 가지 않아서 병이 들 것이고...’ 그런 말과 비교해 보세요. 레위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레위에게 대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그건 아무 문제가 될 일이 아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말씀을 인용하는 목사님들은 하시는 일이 잘 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깨 놓고 얘기하면 본인이 회개해야 할 대목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잘못하고 일을 망쳐놓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가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전도사 된 지 얼마되지 않아서 겁도 없이 이런 소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되면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 저도 압니까 세월 지나면 사람이 또 어떻게 변할지요, 그래서 못된 소리한다 싶거든 “전도사님 언제 이런 말씀 하셨는데...” 하고 깨우쳐 주세요. 이 말이 진짜 의미하는 것은 레위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쓴다면 그건 성경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려고 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한다면 그건 성경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꾸중도 너무 심하고 잔소리도 너무 심해요. 아들이 생각 끝에 아버지 방에다 성경구절 몇장 걸어서 하나를 걸어서 두었습니다. 뭘 걸어서 두면 좋을까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또 아버지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에베소서 6:4) 좀 점잖네요. 그것보다 조금 더 심한 것이 있습니다. ‘공갈을 그치라’ /**상전들이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이니라**(에베소서 6:9) 이걸 아버지 방에 딱 걸어 놓으면 성경구절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가 함부로 떼어 내겠어요?

성경구절을 이렇게 쓰는 것은 성경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니만 성경 잘 아냐? 나도 안다.” 그러면서 아들 방에 무슨 구절을 걸어두면 될까요? ‘자녀들이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훼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마태복음 15:4) 이러면 이것도 성경 말씀 아니예요. 성경말씀은 자신에게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어떻게 행동할까?’ 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성경말씀을 필요한 대로 떼어내서 이 말씀으로 저 녀석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은 결코 가져서는 안됩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에베소서 5:22)는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것은 아내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걸 남편이 외우면 안돼요. 남편 성경에는 그 구절이 없는 겁니다. ‘남편들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몸을 주신 것같이 네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에베소서 5:25) 이걸 누가 외워요? 남편이 외우면 잘 하는 것이지만 그걸 아내가 외우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성경말씀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성경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무서운 저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엉뚱하게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공개석상에서 기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수가 가끔 있습니다. 전혀 그럴 의사가 없는데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든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 올 때 절대 지각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자기는 지각하지 않으면서 이런 기도를 하면 듣기에 따라서 그날 따라 늦게 들어왔는데 하필 “저 기도가 날 들으라고 하네.” 이렇게 들릴 소지가 있다면 내용을 조금 바꾸셔야 합니다. 기도든지 설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특정한 개인을 겨냥하는 것은 극구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기도할 때는 조용하게 남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너무 구체적이지 않게 조금 추상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잘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요약해 보면 레위가 앞으로 맡게 될 임무는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은 레위가 하게 될 일을 말하는 것이고 11절은 레위가 받을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다 종합해보면 레위의 장래는 8절의 첫 문장 **‘그의 둠뎡과 우리임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라는 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 더 탐을 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부모도 형제도 자녀까지도 버릴 수 있는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용기있고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겠습니까? 가족의 임무를 소홀히 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버려야 할 때가 생긴다면 부모도 자식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버릴 수 있다는 각오가 레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3. 저주받은 레위가 복을 받게 된 이유

야곱이 예언한 것과 모세가 예언한 것의 차이점이 뭐고 공통점이 뭔지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지파들 속에 흠어져 버립니다. 흠어져서 거기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제사드리는 일을 맡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지요. 야곱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모세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야곱이 말한 것과 모세가 말한 건 영 달라 보이는데 묘하게도 두 사람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은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가운데 흠어지리라고 하였는데 흠어졌습니다. 흠어져서 모세가 말한대로 제사장으로서의 귀중한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화를 복으로 바꾸어 버리는 방식입니다. 레위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이 남의 탓 아닙니다. 자기 탓이에요. 야곱이 언급했던 그대로 다 이루어지면서도 그것이 그 자체로 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레위가 이렇게 변모했는지를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말한 것은 분명히 화였는데 이 화가 모세에게 건너오면서 복으로 바뀌어버린 이유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인 모세를 선택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부르고 아론을 부르고 미리암을 선지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출생했을 때 이 아이를 어여뻐 여겨서 어머니가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아이를 키웠죠.

도저히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아이를 강물에 띄워 보낼 때 그 아이를 따라갔던 누이 미리암은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몰래 따라갔다가 결국은 그 아이의 엄마를 유모로 들여놓는 그런 과정도 하나님께서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건져내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레위 지파를 들어서 이 귀한 일을 하게 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본 그 본문에서 주께서 레위를 시험하시고 또 레위와 다투셨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반면에 레위의 편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가 있을 때 산 아래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25절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를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좋은 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와 함께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 날에 백성중에 삼 천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부모고 형제고 친구고 자녀고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무조건 처단하는 이 일에 앞장섰던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잔인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지만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가 지금 십계명을 받는, 즉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징벌하는 데에 레위가 앞장을 섰다는 겁니다. 이 말씀과 좀 전에 보았던 그 말씀과 모세가 말했던 그 부분과 맞춰 보세요. 비슷하게 잘 맞습니다. 한 군데 더 봅시다. 민수기 25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싯딤이라는 곳에 왔을 때에 거기서 모압 여자와 음행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 때에 이스라엘에 열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분노가 이스라엘을 뒤덮고 있는 이 때에 묘한 일이 또 하나 벌어집니다. 25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하나님 앞에서 음행한 이 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울고 있는 때에 한 사람이 당당하게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에 가운데서 일어나 그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엄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엄병으로 죽은 자가 이만사천 명이었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그 질투심을 느낀 사람이 레위 지파의 비느하스였습니다. 그가 행한 일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잔혹할 수 있는냐?” 싶지만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하나님 자신의 질투심, 건드릴 수 없는 그 뜨거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4. 기회만 있으면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자기 백성에게 별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만 있으면 복을 주려고 하십니다. 설사 잘못을 범했다 해도 만회할 기회를 늘 주시려고 하십니다. 기회를 줄 때 조금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화를 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레위 지파가 비록 야곱에게 화를 받았지만 광야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심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화를 선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마음먹고 계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알맞게 응답할 때에 주어진 저주마저도 선하게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큰 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었던 에덴동산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엉망진창이 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지 못합니다. 아담이 세상을 얼마나 망쳐 놓았지도 모르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이것을 계기로 처음 창조하셨던 에덴동산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화를 선으로 바꾸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멋진 신앙인의 모습을 한 번쯤은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레위가 광야생활을 하면서 그 일을 해 냈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5. 기회를 놓친 시므온

이쯤에서 설교를 마치면 되는데 우리교회에는 예민한 분들이 많아서 “전도사님, 레위는 그렇게 되었는데 시므온은 어떻게 되었어요?” 하는 분이 틀림없이 있거든요. 설명을 조금 더 드려야겠네요. 설교가 끝난 다음 “전도사님 이걸 이렇고 저건 이런데요.” 하는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 나중에 직접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대단히 좋아합니다. 잘 듣고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되새김질 하다보면 빠진 것이 있다고 질문을 추가로 하시더라고요.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시므온은 어떻게 되었지요? 레위와 시므온은 야곱이 같이 화를 내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기서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를 이야기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시므온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시므온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까?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부족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레위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레위가 비록 이런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

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서 이렇게 복된 지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레위는 그렇지만 난 아무래도 시므온이 아닐까?” 생각하는 분들이 꼭 있더라 말입니다. 시므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언급한 이 복에 시므온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앞 뒤를 잘 비교해 보시면 광야생활을 시작할 때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오만구천삼백 명입니다. 그런데 40년 지난 후에 인구조사를 다시 할 때에 보면 이만이천이백 명입니다. 오만구천 명이었는데 이만이천이니까 절반 이하로 줄어버렸습니다. 다른 지파는 숫자가 다 늘어나는데 시므온 지파는 절반 이상으로 줄어버려요. 이건 광야생활 도중에 많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좀 전에 보았던 민수기 본문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민수기 25장 14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과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혼이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족장 중 한 족장이며...’** 어느 지파입니까? 시므온 지파입니다. 심지어 시므온 지파 중에서도 족장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하는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가 광야생활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았을는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을 내면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시므온 지파는 그런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인구가 급감해버렸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의 지도하에서 전투를 하면서 땅을 확보해 나갑니다. 다른 지파는 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유독 시므온 지파만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땅을 가장 넓게 차지한 유다 지파의 한쪽을 얻어서, 그러니까 다른 형제가 얻은 땅을 얻어서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가 거기 그냥 살지 않아요. 각자 개인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둘씩 이리저리 흩어져서 지파의 땅이 없어요. 이리저리 다른 지파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레위 지파도 각 지파에 흩어지고 시므온도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6. 우리는 시므온인가? 레위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레위로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시므온으로 부르셨을까요?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는 우리가 생각할 바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아! 확실히 하나님께서 나를 레위 지파로 부르셨구나!”라고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레위로 부르셨을까 시므온으로 부르셨을까?” 제발 그런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레위처럼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서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레위처럼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필요하지 “내가 잘 하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안되나? 하나님께서 나를 레위로 부른 것이 아니고 시므온으로 부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서 노력하고 애쓰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정도로 완벽하게 잘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노력할 뿐입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레위 지파가 가진 그 열심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거기 가서 “복이 될지 누가 아나?” 혹은 “아이고 그만하기 다행이다.” 이런 얘기는 이제 하지마시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깁니다. 하긴 그 말조차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긴 하죠. 그러나 더 나은 것은 비록 이런 일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만 하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이 어려운 것을 복으로 바꾸시려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레위가 질투심이 강했습니다. 그 질투심은 누구의 질투심입니까? 하나님의 질투심입니다. 레위가 가졌던 그 질투심은 표현을 바꾸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질투심을 갖고 사노라면 하나님께서 화를 복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데, 부모도 형제도 막을 수 없다는 이런 열심, 이런 질투심이 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레위가 큰 복을 받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2003.02.09] 화를 복으로 바꾼 레위 (창세기 49:5~7)

뜨거운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 질투심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도 레위가 받았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